변우혁의 만루홈런…잠자던 호랑이 타선 깨우다

변 우 혁

초반 부진하던 KIA, 변우혁이 홈런 친 두 경기 모두 승리
"볼 배합 보이고 타석에서 느낌 와…팬들 성원 보답하겠다"

미완의 변우혁이 '경험'이라는 보약을 통해 KIA 타이거즈의 차세대 거포로 성장하고 있다.

KIA 변우혁은 25일 경기 전까지 올 시즌 13경기에 나와 33타수 6안타로 0.182의 타율을 기록했다. 타율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팀이 기대했던 힘은 제대로 보여줬다.

4월 2일 SSG 랜더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이적 후 첫 선을 보였던 변우혁은 첫 타석에서부터 맥카티의 직구를 좌측 담장 밖으로 날렸다. 홈런으로 신고식을 한 변우혁은 이날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2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변우혁의 시즌 2호포가 터졌다. 이번에는 1회말 2사 만루에서 나온 '그랜드슬램'. 첫 타석에서 한 번에 4타점을 쓸어 담아준 변우혁의 활약으로 KIA는 시즌 첫 위닝 시리즈이자 연승에 성공했다. 한 방으로 초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KIA는 변우혁의 홈런을 기록한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다.

KIA가 바라던 홈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선발로 나와 안타를 추가하지 못한 경기도 5차례 있는 등 아직은 경험과 세밀함은 부족하다.

하지만 변우혁은 2019년 입단 후 1군에서 161타석 밖에 소화하지 못한 미완의 대기다. 선발로 꾸준하게 경기를 소화한 경험도 많지 않다.

그런 만큼 변우혁은 매 경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쟁쟁한 투수들의 공을 마음껏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 변우혁에게는 큰 자산이다.

변우혁은 "개막하고 좋은 투수 많이 만나보고 있다. 이런 게 처음이다. 직구가 많이 안 오기도 하는데, 변화구를 많이 보고 있다. 카운트 싸움을 하면서 포볼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것 같다"며 "초구에 못 치면 느끼는 게 없는데 공 많이 보고, 볼넷, 풀카운트 가면서 볼 배합이 보인다. 다음 타석에서 뭐가 오겠다는 느낌이 온다. 풀카운트 가면 유리해졌다고 생각한다. 물고 늘어지면 확실히 투·포수 입장에서도 그냥 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풀카운트가면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다음 타석이 있으니 타석 내용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타팅으로 나가 선발들의 좋은 공을 보고, 다음 타석이 있기 때문에 더 침착하게 승부를 하면서 내 공을 쌓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기회를 받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변우혁은 "공은 잘 보이는 데 약간의 타이밍이 아쉽다. 변화구 타이밍을 노려서 치는 것도 많은데 조금씩 빗맞는다. 카운트 싸움하다가 마지막에 작은 차이로 지는 느낌이다"며 "다른 팀들도 분석을 하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들어오는 것도 많다"고 이야기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이 있어서, 보여줄 기회가 있어서 변우혁은 매일 행복하다. V11을 이룬 명문 팀에서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 속에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도 행복하다.

야구 인생 첫 그랜드슬램은 그래서 더 잊을 수 없다. 변우혁의 만루포가 나온 이날 KIA 선수들은 타이거즈를 상징했던 강렬했던 '검빨'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다. 올드 유니폼을 입은 변우혁은 '만루홈런 타자'로 1만2990명이 입장한 챔피언스필드를 돌았다.

변우혁은 경기 전날에 유니폼을 받았는데 평소 경기 준비하면서 유니폼 갈아입을 때 보다 빨리 입었다. 혼자 사진도 찍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도 잘 어울린다고 말해줬다"며 "만루 홈런도 야구 하면서 처음 쳤는데 홈런 치고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좋았다"고 웃었다.

또 "수도권이든 어디서 경기를 하든 KIA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다. 그런 부분이 더 유리하고 재미있게 야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다. 행복하다"고 새 팀에서의 새 봄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연경, 여자배구 팀 '고문'으로 다시 단 태극마크

"설레는 마음 크게 느껴진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자배구 4강 신화를 이끈 뒤 태극마크를 반납했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프로 무대에서는 상대 팀 선수가 받을 수 없게 강스파이크를 날려야 한다면, 대표팀에서는 후배들이 좋은 공을 마음껏 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임무다.

다음 달 막을 올리는 2023 국제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리그(VNL)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24일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대표팀에 '어드바이저(고문)'라는 직함을 받은 김연경도 태극마크가 새겨진 훈련복을 입고 선수단에 합류했다.

김연경은 세사르 에르난데스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외국인 스태프와 선수단의 가교 구실을 자처하고 나섰다.

"진천에 올 때부터 설레는 마음이 정말 크게 느껴지고 선수들을 볼 생각에 즐거웠다.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돼서 기쁘다"고 입을 연 김연경은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 VNL은 다음 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와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한민국 수원시, 일본 나고야, 홍콩, 태국 방콕을 3주 일정으로 방문해 돌아가며 열린다.

김연경은 다음 달 21일 튀르키예로 출국하는 대표팀 전지훈련도 함께할 예정이다.

도쿄올림픽 4강 진출로 정점을 찍은 한국 여자배구는 김연경과 양효진, 김수지 등 이제껏 대표팀을 지탱했던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 고전을 면치 못한다.

여자배구대표팀 어드바이저(고문)로 합류한 김연경(왼쪽)이 24일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박은진, 이주아, 이다현, 한유미 코치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대교체를 선언하고 출전한 지난해 VNL에서는 대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전패·무승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자신이 태극마크를 반납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대표팀 후배를 바라보며 마음에 짐을 느꼈던 김연경은 고문 직함과 함께 경험 전수에 나선다.

한유미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

이날 대표팀 소집 첫날 훈련은 한유미 코치가 이끌었다.

에르난데스 감독은 소속팀 튀르키예 바키프방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입국해 진천선수촌에 합류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 여자배구는 VNL을 시작으로 9월에는 파리올림픽 세계 예선, 9월 말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치른다.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허투루 치를 수 있는 대회가 하나도 없다.

대표팀 주장 중책을 맡은 박정아는 "중요한 경기가 많으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매일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LA 챔피언십 27일 개막…유해란 LPGA 첫승 할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이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윌셔 컨트리클럽(파71·6258야드)에서 열린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이 대회는 총상금 300만달러로 다른 대회보다 큰 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 기업 JM 이글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덕분이다.

총상금 300만 달러가 넘는 LPGA 투어 대회는 5개 메이저대회와 CME 그룹 투어챔피언십,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셔널 등 정도다.

2018년 시작한 LA 오픈과 이름은 비슷해도 별개의 대회다.

그동안 매해 4월 윌셔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던 LA 오픈은 LA 챔피언십에 코스와 개최 날짜를 내줬고,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버디스 골프클럽에서 나흘간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는 고진영을 포함한 한국 골퍼 15명이 출전해 올 시즌 두 번째 '한국인 챔피언' 탄생에 도전한다.

지난달 HSBC 월드 챔피언십 2연패로 화려한 부활을 알린 고진영은 시즌 2승 수확에 나선다.

고진영은 우승 이후 LA오픈에서 공동 25위로 다소 주춤했으나 메이저 대회인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2021년 윌셔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던 LA 오픈

유해란

셋째 날 단독 2위에 올랐다가 마지막 날 1타를 잃어 공동 3위가 됐던 아쉬움도 한꺼번에 털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5개 대회에서 톱10에 3번 진입한 김효주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우승 갈증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브론 챔피언십 공동 4위로 선전한 양희영도 통산 5승째를 겨냥한다. 영암 출신 유해란도 LPGA 데뷔 첫 승에 도전한다.

이밖에 박성현, 신지은, 안나린, 유해란, 지은희, 최운정 등이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토트넘, 1-6 참패 직후 스텔리니 감독대행 해임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1-6으로 참패한 다음 날 크리스티안 스텔리니(이탈리아) 감독대행을 해임했다.

토트넘은 25일(한국시간) "뉴캐슬과의 경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스텔리니 감독대행은 다른 코칭스태프들과 함께 현재 맡은 역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한국 국가대표 에이스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23일 뉴캐슬과 경기에서 1-6으로 크게 졌다. 경기 시작 21분 만에 0-5로 끌려가는 등 이례적인 졸전을 펼쳤다.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이탈리아) 감독이 2021년 11월부터 팀을 이끌다가 3월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